

韓國 勞動市場의 硬直性

尹 鳳 駿*

〈목 차〉

- I. 서론
- II. 노동시장 경직성 모형
- III. 모형의 추정결과
- IV. 임금의 균형회귀도 추정
- V. 요약 및 대책
- 부록 : 3분류산업의 내역과 산업더미 SIC의 정의
- 참고문헌

I. 서 론

우리나라 경제는 1980년대 후반 과열경기를 경험한 후 1990년대에 와서는 역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이는 거품경제 종식이라는 국내적 요인과 함께 세계경기의 침체에 기인한다고 보아진다. 이에 따라 국내의 제조업의 성장세의 전반적 후퇴와 함께 석유-신발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채산성악화 및 이에 따른 도산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불경기로 인해 失業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열경기시대에 시작된 인력부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실업과 인력부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주로 생산직노동에서 일어나고 있다. 실업은 인력의 유향화로 그리고 인력난은 설비의 유향화로 자원의 활용도를 낮추어 사회적비용을 증대시킨다.

그런데 노동시장의 사정이 변화하여 노동의 수급에 차질이 일어날 경우

* 본 연구는 산학협동재단의 1992년도 학술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 논문 자료정리를 도운 전상현 조교 그리고 논평을 준 경제학연구 심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임금수준이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면 실업이나 인력난은 장기간 계속될 수 없다. 그 까닭은 노동의 초과공급 즉 실업은 임금의 신속한 하락으로 해소되며 노동의 초과수요 즉 인력부족은 임금의 신속한 상승으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직노동시장에서 실업과 인력난이 혼재하고 있다는 것은 노동시장이 탄력적이지 못하고 경직적임을 나타내어 준다. 즉 노동시장의 수급에 불균형이 있을 때 임금이 균형수준으로 회귀하는 속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어서 임금의 균형회귀속도가 지연되면 될수록 생산의 비효율이 야기된다. 먼저 임금이 균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노무비상승으로 인해 일차적으로는 원가압박이 일어나며 이차적으로는 적정수준으로 고용규모를 확장할 수 없는 까닭에 비효율이 야기된다. 반대로 임금이 균형수준이하일 때는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어서 설비의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이 또한 생산규모의 적정화를 불가능하게 하여 효율이 저하된다. 그러므로 임금이 균형수준을 벗어났을 경우 그것의 방향이 증가일 때나 감소일 때나 모두 균형수준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커야 생산효율이 유지된다. 따라서 임금의 균형회귀 속도를 높여야 즉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줄여야 생산성의 향상과 국제경쟁력의 제고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경직성 정도를 임금의 균형 회귀度 내지 균형 회귀 遲延度의 추정치에 의하여 측정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고용-임금에 관련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의 균형 회귀度 즉 임금이 균형수준을 벗어났을 경우 균형으로 회귀속도를 추정한다. 임금이 균형수준보다 높은 과다임금 즉 노동의 초과공급의 경우와 임금이 균형수준보다 낮은 과소임금 즉 노동의 초과수요의 경우 균형회귀속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고찰한다.

본연구의 구성을 보면 먼저 제2장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 모형을 소개한다. 이 모형은 노동의 수요-공급식 그리고 임금의 균형회귀도를 나타내는 임금반응식으로 구성된다. 제3장에서는 2단계최소자승법에 의한 노동의 수요-공급 및 임금반응식의 추정결과를 보고한다. 제4장에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분석하기 위해 임금반응식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임금의 균형회귀도를 추정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의 요약과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대책으로 본연구를 끝낸다.

II. 노동시장 경직성 모형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경직성의 정도에 관해서는 초보적 연구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배무기(1991)에서 노동력의 부문별, 계층별 과부족에 대한 분석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記述적 접근법으로서 아직 심층적인 계량연구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노동시장의 경직성 연구는 멀리는 Keynes(1936)의 화폐임금의 하방경직성에서 시작할 것이나 보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경험적으로 지표를 통해 측정해보려는 시도는 Gordon(1982)과 Metcalf(1984)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Gordon(1982)과 Metcalf(1984)는 제조업 실질임금의 분산도 개념을 사용하였다. 즉 실질임금이(시계열 분석을 통해)동일하지 않고 변화의 폭이 크다면 노동시장이 탄력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분산도가 탄력성(負의 경직성)을 의미하기 보다는 불안정성을 알려주는 면도 클 것이므로 이것을 경직성지표로 사용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개념적 한계성과 아울러 경험적 응용에 있어서 분산도의 구체적 측정방법들간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향을 보여준다. 즉 4-분기중표준편차를 사용할 경우와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사용할 경우, 시계열의 분산을 사용할 경우, 그리고 추세식을 이용한 R^2 를 사용할 경우가 각기 지표로서의 타당성을 갖으나 이들이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하는데 문제가 있다.¹⁾

이러한 분산도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Sachs(1983)와 Artus(1984)는 임금피리지표를 사용하여 노동시장 경직도를 측정한다. 임금피리지표는 실질임금의 실제변화분(actual change)에서 그것의 정당변화분(warranted change)을 뺀 것이다. 여기서 실질임금의 정당변화분은 해당산업부문의 생산성증가분을 의미한다. 기준시점이 균형일 경우 정당변화분을 더할 경우 다음기의 균형임금이 나오게 된다고 보면 임금피리지표가 零일 경우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임금피리지표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기준시점을 어떻게 잡느냐는 것이다. 균형점을 실업율이 최저수준인 시점을 잡을 수도 있고 노동분배율의 안정기로 할 수도 있는데 이 두기준을

1) Beckerman and Jenkinson(1986) 참조.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점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보다 광범위하게 이용되어온 노동시장 경직성 혹은 탄력성의 측정방법은 임금방정식적 접근법이다.(Lipsey(1960), Hahn(1984), Grubb, Jackman, Layard(1983) 참조) 여기서는 노동의 초과공급(혹은 초과수요)을 파악하고 이 노동의 초과공급 즉 실업의 크기 아니면 이 실업을 해소시키는데 요구되는 임금의 변화폭으로 노동시장 경직도를 측정한다. 그런데 임금방정식적 접근법이 가지는 약점은 노동의 초과공급을 실업율로 측정하는데 있다. 실업자료가 초과수요를 제대로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Ashenfelter and Card(1983), Jenkinson(1986)은 미국이나 OECD회원국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Granger Causality 개념에 의거하여) 실업이 임금변화를 야기한다는 방증을 얻을 수 없었고 Geary and Kennan(1982)은 OECD회원국의 경우 임금과 실업간에 통계적 상호 독립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노동의 초과수요는 노동의 수요식과 공급식으로 부터 구해내야 하는 것이다. 본연구는 Beckerman and Jenkinson(1986)의 방식을 따라 노동의 수요와 공급 방정식을 설정하고 당기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노동수요량 및 노동공급량을 이 두식으로 부터 결정한 후 수요량과 공급량이 다를 경우를 노동시장의 불균형으로 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업율을 경직도지표라고 보고 임금방정식적 접근과는 달리 관찰된 실제 고용량과 수요량 혹은 공급량간의 차이를 불균형압력치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 불균형압력치는 노동시장경직성의 정태적 지표이다. 이는 노동시장의 균형이 얼마나 신속하게 회복되는지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경직도 혹은 탄력도는 얼마나 신속하게 균형이 회복되는지를 알려주는 동태개념이어야 하므로 불균형압력치에서 더 나아가 현재의 관찰임금결정을 과거의 관찰임금 및 노동의 수급불균형의 함수로 설정한다. 여기서 초과수요의 경우와 초과공급의 경우 둘이 서로 상이한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비대칭성을 상정한다. 이제 본연구의 노동시장경직성 모형을 아래와 같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모형 및 임금반응모형의 둘로 나누어 상론하기로 한다.

1. 노동의 수요와 공급모형

본연구는 노동시장의 균형을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될 때 일어난다고 정의하며 그때의 고용수준을 균형고용량이라 부르기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균형이 제때 일어나지 않는다면 즉 불균형이 생긴다면 실제 관찰된 고용량이 균형고용량과 다르게 되고 이 둘간의 격차가 불균형 압력의 크기를 알려주는 척도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 압력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공급량과 수요량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하나 이들은 관찰불가능한 변수들이므로 추정치로 대신해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의 공급함수와 수요함수를 추정하여야 한다. 본연구는 장기노동수요함수와 장기노동공급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먼저 t 기에 산업부문 S 에서의 장기노동수요함수 D_{ts} 는 아래와 같다.

$$(1-a)D_{ts} = \alpha_0 + \alpha_1 W_{ts} + \alpha_2 WPI_{ts} + \alpha_3 K_{ts} + \alpha_4 Q_{ts} + \alpha_5 RGNP_t + \sum_{s=1}^{26} \alpha_{5s} SIC_s + \varepsilon_d$$

여기서

D_{ts} = 생산직노동 수요량

W_{ts} = t 기의 s 산업에서의 생산직노동자의 명목임금

WPI_{ts} = t 기의 s 산업 생산제품의 도매물가지수

K_{ts} = t 기의 s 산업의 자본스톡

Q_{ts} = t 기의 s 산업의 산출량 : 실질금액기준

$RGNP_t$ = 실질 GNP

SIC_s = 산업더미 : s 번째 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ε_d = 교란항

위의 노동수요식의 右변수중에서 먼저 임금변수는 명목임금으로 하였다 물론 이론상으로 보면 임금 W_{ts} 는 실질임금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질임금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구매력을 뜻하므로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W_{ts}/CPI_{ts} 이 보다 나은 임금지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임금은 비용을 뜻하므로 명목임금을 도매물가지수로 나눈 W_{ts}/WPI_{ts} 가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수요식에는 W_{ts}/CPI_{ts}

를 사용하고 노동공급식에는 W_{ts}/WPI_{ts} 를 사용한다면 노동의 가격이 두가지가 되어 수요와 공급을 균형시킬 동일한 가격지표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실질임금의 이원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연구의 노동수요식, 공급식에서 노동의 가격은 당기의 명목임금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도매물가지수는 노동수요식의 우변수의 하나가 된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물가지수는 노동공급식의 우변수가 된다.

s산업의 노동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산업의 노동의 한계생산성이므로 노동수요식의 우변수로 명목임금과 도매물가지수외에 생산성결정변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생산성결정변수로는 첫째 자본(K), 둘째 산출량(Q), 그리고 셋째 s산업의 제품수요를 결정하는 거시변수로서 실질GNP(RGNP)를 넣었다. 마지막으로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산업더미(SIC)를 포함시켰다.

노동수요식의 우변수 계수의 부호는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먼저 실질임금의 상승은 노동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므로 W_{ts} 는 음의 부호를 그리고 WPI_{ts} 는 양의 부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자본의 증가는 노동의 한계생산성을 증대시킬 것이므로 K_{ts} 는 양의 계수가 예상된다. 그리고 자본과 노동이 불변일 경우 산출량이 증대된다면 이는 노동생산성의 상승을 의미하므로 임금의 상승 및 노동수요의 증가를 초래한다. 따라서 Q_{ts} 의 부호는 양이 되어야 할 것이다. s산업의 산출물이 正常財라고 가정할때 RGNP 역시 양의 부호를 가져야 한다. 실질GNP가 클수록 正常財의 경우 소득상승으로 인해 수요가 늘며 이에 따라 재화가격이 상승하여 노동수요가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t기에 산업부문 s의 장기노동공급함수 S_{ts} 는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1-b)S_{ts} = \beta_0^* + \beta_1^*W_{ts} + \beta_2^*CPI_t + \beta_3^*INT_t + \beta_4^*t + \sum_{s=1}^{26} \beta_5^*SIC_s + \epsilon_s^*$$

여기서 W_{ts} =S산업에서 t기의 생산직노동자의 명목임금

CPI_t =t기의 소비자물가지수

INT_t =실질이자율=회사채수익율-소비자물가상승율

t=연도 : 추세 변수

SIC_s =산업더미 : s번째 산업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다.

ϵ_s^* =교란항

노동공급은 노동의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의 한계수익은 실질임금이므로 노동공급식의 우변수로 명목임금(W)과 소비자물가지수(CPI)가 포함된다. 노동의 한계비용을 결정하는 변수는 개별노동자의 특성이므로 미시자료를 필요로 하며 본연구가 사용하는 집적자료로는 이를 파악하기 힘들다. 또 한계비용의 단위 역시 주관적인 효용 내지 선호에 의해 정해지므로 노동의 한계비용의 계량화에 어려움이 따른다. 단지 노동의 한계비용에 따른 효용상실이 비임금소득이 많을수록 더 크다고 보고 실질이자율(INT)을 비용측면에서 본 노동공급 결정변수로써 포함시켰다. 그리고 노동공급의 장기변화를 나타내는 요인들 예컨대 농촌인력의 감소, 여성노동력의 증대, 청소년인력의 감소 등등을 요약하는 시간(t)을 추세변수로 포함시켰다. 마지막 우변수는 산업더미(SIC)로써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다.

노동공급식의 우변수의 계수의 예상부호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질임금의 상승은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것이므로 W_{ts} 는 양의 부호를 그리고 CPI_t 는 음의 부호가 가져야 할 것이다. 실질이자율의 증가는 비임금소득의 증대를 의미하며 이는 효용단위로 측정한 노동의 한계비용의 상승을 가져오므로 증대시킬 것이므로 INT_t 는 음의 계수가 예상된다.

노동시장의 균형을 이룰 경우 고용량 L_{ts} 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는 데서 정해진다. 즉,

$$(1-c) \quad D_{ts} = S_{ts} = L_{ts}$$

식 (1-a)-(1-c)를 고용량과 임금에 관해 풀면 고용량과 임금에 관한 2원연립방정식을 얻게 된다. 먼저 (1-c)를 (1-a)에 대입하면 노동수요식을 다음과 같은 고용량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quad L_{ts} = \alpha_0 + \alpha_1 W_{ts} + \alpha_2 WPI_t + \alpha_3 K_{ts} + \alpha_4 Q_{ts} + \alpha_5 RGNP_t + \sum_{s=1}^{26} \alpha_{5s} SIC_s + \epsilon_d$$

(1-c)를 (1-b)에 대입하여 이것을 다시 임금에 관하여 풀면 노동공급식은 아래와 같은 임금식으로 표시된다.

$$(2) \quad W_{ts} = \beta_0 + \beta_1 L_{ts} + \beta_2 CPI_t + \beta_3 INT_t + \beta_4 T + \sum_{s=1}^{26} \beta_{5s} SIC_s + \epsilon_s,$$

여기서 $\beta_1 = 1/\beta_1^*$,

$$\beta_j = -\beta_j^*/\beta_1^*, j=0, j=2, \dots, 4,$$

$$\beta_{5s} = -\beta_{5s}^*/\beta_1^*, s=1, \dots, 26,$$

$$\epsilon_s = -\epsilon_s^*/\beta_1^*.$$

2. 노동시장의 임금반응모형 : 노동시장 불균형의 동태적 측정

위의 식 (1)–(2)의 계수를 안다면 장기균형임금과 장기균형고용량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균형고용량과 통계자료로 고찰되는 고용량 즉 관찰고용량의 차이가 곧 노동시장 불균형 압력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노동시장에서 수급균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균형고용량을 L_{ts} , 그리고 관찰고용량을 N_{ts} 라 표기하면 균형임금과 관찰임금은 동일하지 않게 되며 이 두 고용량간의 격차가 불균형압력의 수준을 측정해준다. 따라서 불균형압력을 P_{ts} 로 표기하면

$$P_{ts} = L_{ts} - N_{ts}$$

가 된다.

그런데 노동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는 불균형상태에서 수요량과 공급량 둘중에서 적은 것이 유효고용량 곧 관찰고용량이 되므로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N_{ts} = \min(D_{ts}, S_{ts})$$

위에서 본 불균형압력은 불균형의 상태에 관한 내용 즉 정태적 불균형을 나타낸다. 그러나 불균형이나 균형의 진정한 의미는 정지개념으로서의 상태가 아니라 균형으로 회복하는 힘의 不在 혹은 存在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불균형의 동태적 측정을 다루기로 한다.

노동시장에 불균형압력이 존재할 경우 관찰 실제임금이 얼마나 빨리 적응하여 균형수준으로 변화하는가 하는 균형회복력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균형회복력이 미약할 경우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관찰되는 실제임금이 불균형 압력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관찰임금의 경직성을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t -기, s -산업

의 실질임금을 $W_{t,s}$ 로 표기하면

$$(3-a) \quad W_{t,s} = f(W_{t-1,s}, \dots, W_{t-J,s}, D_{t-1,s} - N_{t-1,s}, S_{t-1,s} - N_{t-1,s})$$

예를 들어 식(3)의 아주 간단한 형태를 가정하면

$$(3-b) \quad W_{t,s} = \sum_{s=1}^{27} \gamma_s \text{SIC}_s + \gamma_1 W_{t-1,s} + \gamma_2 (D_{t-1,s} - N_{t-1,s}) \\ + \gamma_3 (S_{t-1,s} - N_{t-1,s})$$

인데 여기서 γ_2 의 값이 크면 클수록 노동의 초과수요가 있을 때 임금이 신속하게 증가하는 까닭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적고 유연성이 크다. 그리고 γ_3 의 값이 크면 클수록 노동의 초과공급이 있을 때 임금이 빨리 감소하므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적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여기서 임금 $W_{t,s}$ 는 실질임금이어야 할 것이나 위의 노동수 및 공급방정식 설정에서 본대로 실질임금의 이원성이 존재한다. 즉 노동자의 구매력과 기업의 비용이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본연구의 임금반응식에서는 수요와 공급측에 동일한 가격지표로서의 명목임금을 사용하되 소비자물가지수와 도매물가지수를 추가적 설명변수로 넣기로 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 추정하는 임금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3) \quad W_{t,s} = \sum_{s=1}^{27} \gamma_s \text{SIC}_s + \gamma_1 W_{t-1,s} + \gamma_2 XD_{t-1} + \gamma_3 XS_{t-1,s} + \gamma_4 \text{CPI}_s \\ + \gamma_5 \text{WPI}_{t,s} + \nu_{t,s}$$

여기서 $W_{ts}=t$ 기의 s 산업에서의 생산직노동자의 명목임금

$W_{t-1,s}=t-1$ 기의 s 산업에서의 생산직노동자의 명목임금

$XD_{t-1,s}=D_{t-1,s}-N_{t-1,s}$ =노동의 초과수요

= $t-1$ 기 s 산업에서 노동공급추정량<식(3)>에서 실제고용량을 뺀 것

$XS_{t-1,s}=S_{t-1,s}-N_{t-1,s}$ =노동 초과공급= $t-1$ 기의 s 산업에서 노동공급추정량<식(2)>을 (1-b)식 형태로 노동량으로 치환해서 실제고용량을 뺀 것

$\nu_{t,s}$ =교란항

III. 모형의 추정결과

1. 추정에 사용된 자료 및 추정방법

위에서 본 (1)의 장기노동수요함수와 (2)의 장기노동공급함수로 구성되는 2원연립방정식 그리고 (3)의 임금반응식으로 노동시장 경직성 모형이 구성된다. 본연구의 모형추정을 위해 우리나라 제조업중 27개의 3분류산업 각각의 1978-1990년 기간에 걸친 27산업 \times 12년의 시계열-횡단면 자료를 만들었다. 따라서 표본의 크기는 351이 되며 거시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3분류의 개별산업별로 측정되었다. 이 자료에서 도출된 각 변수의 정의는 제 II 장에 주어져있으며 요약통계는 <표 III-1>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27개 3분류산업업대미 SIC₃의 정의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자본(K)의 경우 경제기획원의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78-1987년도 그리고 1988-90년은 경제기획원의 산업센서스보고서를 이용하여 자본(K)는 총유형고정자산에서 토지를 제외한 후 이를 자본가격지수로 나눈 실질금액 표시 자본스톡이다. 자본가격지수는 한국은행 통계연보에 있는 경제활동별 총자본형성항목에 나와있는 제조업 년도별 총고정자본의 경상가격을 불변가격으로 나누어 구했다. 고용량(L)은 광공업조사보고서 및 산업센서스보고서에 있는 상용종업원기준의 생산직근로자수이다. 산출량(Q)는 광공업조사보고서 및 산업센서스보고서의 경상가격기준 생산액을 도매물가지수(WPI)로 나눈 것이다. 임금(W)은 연간 생산직종업원 급여총액을 생산직노동자수로 나누어 구하였으므로 생산직노동자 1인당 연간 명목임금이다. 실질 GNP(RGNP)는 1985년 불변가격기준으로 하였다.

추정방법을 설명하면 먼저 각산업별 자료의 시계열 즉 횡단면-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식 (1)과 (2) 즉 노동의 장기공급 및 수요식을 2원연립방정식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이는 Beckerman and Jenkinson의 단일방정식 추정방법이 갖는 단점 즉 연립방정식추정오차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균형고용량 L_0 는 관찰이 불가능하므로 관찰고용량 N_0 를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노동수요식과 임금식(노동공급식의 변형형태)을 추정하였

다.²⁾ 그리고 두 추정식의 결과를 사용하여 1분기 전의 노동 수요량과 공급량 즉 D_{t-1} 과 S_{t-1} 의 추정치를 구한 후 이를 임금경직성식 (3)의 추정에 이용하였다.

〈표 III-1〉 요약통계*

(표본크기 = 351)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N_{ts}	68875.	80594.	2213.	$.3754 \times 10^6$
W_{ts}	3.3766	2.5826	.6874	28.55
WPI_{ts}	93.309	19.638	26.10	148.6
K_{ts}	$.90017 \times 10^6$	$.11447 \times 10^7$	$.3348 \times 10^5$	$.7705 \times 10^7$
Q_{ts}	$.31024 \times 10^7$	$.45196 \times 10^7$	$.3884 \times 10^5$	$.5547 \times 10^8$
$RGNP_t$	73678	25363	$.4447 \times 10^5$	$.1211 \times 10^6$
CPI_t	93.572	23.206	46.59	130.2
INT_t	.083365	.030668	.01386	.1184
t	84.000	3.7470	78.00	90.00
$XD_{t-1,s}$	-21.599	19834.	$-.2585 \times 10^6$	$.7759 \times 10^5$
$XS_{t-1,s}$	-807.09	74670.	$-.1946 \times 10^6$	$.1009 \times 10^7$

a : 금액은 백만원단위이며 인원수는 명임.

2. 노동의 수요와 공급모형의 추정결과

1) 노동수요함수 추정결과 : 2단계최소자승추정치

〈표 III-2〉에 수록되어 있는 2단계최소자승법에 따른 노동수요함수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식(1)의 좌변수로 포함된 노동수요의 결정요인은 모두 그 추정계수가 예상된 것과 부호가 동일하다. 그러나 도매물가지수(WPI_t)와 산출량(Q_{ts})의 경우 추정계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않고 있다.³⁾ 절편과 산업더미를 제외한 나머지 결정변수들의 계수는 모두 통계적 유의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명목임금(W_{ts})의 상승은 노동수요량을 감소시키고 자본(K_{ts})의 증대와 일인당실질국민소득($RGNP$)은 노동수요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2) 본모형은 수요-공급식으로 이루어진 연립계량 모형이다. 따라서 $P_{ts} = L_{ts} - N_{ts}$ 의 값이 매 기마다 0은 아니지만 그것의 기대치가 0이 된다. 즉 장기적으로 보아 $EP_{ts} = 0$ 이다. 따라서 수요식과 공급식의 잔차항은 추정오차를 포함하지만 이와 더불어 노동의 초과수요(공급)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유의도는 여기서와 아래에서 모두 10%를 기준으로 하였다.

경험적으로 확인된다.

〈표 III-2〉 노동수요함수 추정결과 : 2단계최소자승추정치

종속변수 = 생산직노동고용량(L_{15})

변수	추정계수	t-값
절편	-5207.63	-.523
W_{15}	-12761.1	-3.743
WPI_1	19.6666	.246
K_{15}	.0186437	5.518
Q_{15}	.000522504	1.038
RGNP	.844721	4.071
SIC_1	50882.9	5.520
SIC_2	-8360.54	-1.005
SIC_3	5781.91	.538
SIC_4	255209.0	22.318
SIC_5	160601.0	18.818
SIC_6	-3932.63	-.496
SIC_7	-5465.88	.687
SIC_8	5277.98	.665
SIC_9	-5050.53	-.637
SIC_{10}	28633.8	2.630
SIC_{11}	12064.9	1.434
SIC_{12}	-8275.37	-.906
SIC_{13}	7148.33	.870
SIC_{14}	26180.9	1.422
SIC_{15}	-8399.96	-.963
SIC_{16}	87805.2	10.848
SIC_{17}	14207.5	1.779
SIC_{18}	-16055.7	-2.014
SIC_{19}	-1613.32	-.188
SIC_{20}	10114.1	1.224
SIC_{21}	-6181.01	-.604
SIC_{22}	-4015.89	-.475
SIC_{23}	57738.5	7.090
SIC_{24}	55466.9	6.753
SIC_{25}	161062.	16.429
SIC_{26}	65113.8	6.917

$R^2 = .937075$: Adjusted- $R^2 = .930961$

표본크기 = 324

2) 노동공급함수 추정결과 : 2단계최소자승추정치

2단계최소자승법에 따른 노동공급함수의 추정결과는 <표 III-3>에 제시되어 있다. 노동공급임금식 (2)의 좌변수 즉 노동공급량에 상응하는 임금

<표 III-3> 노동공급함수 추정결과 : 2단계최소자승추정치

종속변수 = 생산직노동의 명목임금 (W_u)

변수	추정계수	t-값
절편	-31.7364	-3.984
L_{15}	0.0000233654	1.756
CPI_t	0.00274691	0.173
INT_t	-8.37504	-2.517
t	.404811	3.531
SIC_1	-2.00222	-1.556
SIC_2	1.23764	1.724
SIC_3	2.61992	3.530
SIC_4	-7.30897	-1.755
SIC_5	-4.55919	-1.897
SIC_6	0.0446921	-0.065
SIC_7	-.210779	-.305
SIC_8	0.0329197	.048
SIC_9	0.248534	.356
SIC_{10}	2.33085	3.353
SIC_{11}	0.872631	1.261
SIC_{12}	1.95282	2.830
SIC_{13}	0.708633	1.022
SIC_{14}	5.67810	7.281
SIC_{15}	1.53335	2.035
SIC_{16}	-2.46993	-1.695
SIC_{17}	-.360178	-.484
SIC_{18}	0.0696499	0.097
SIC_{19}	1.31257	1.843
SIC_{20}	.384972	.520
SIC_{21}	1.02665	1.286
SIC_{22}	1.29722	1.834
SIC_{23}	-1.15053	-.997
SIC_{24}	-.760557	-.681
SIC_{25}	-3.57390	-1.307
SIC_{26}	-.555800	-.392

 $R^2 = .534747$: Adjusted $-R^2 = .491130$

표본크기 = 324

즉 노동공급임금의 결정요인은 절편과 산업더미를 제외할 경우 소비자물가지수(CPI_t)의 계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않고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띄고 있다. 첫째 양의 부호를 갖는 노동공급량($L_{t,s}$)계수는 노동공급량과 명목임금의 정의 관계를 확인시켜 준다. 둘째 음의 실질이자율(INT_t)의 계수는 임금식을 노동공급식으로 변환할 경우 실질이자율과 노동공급량간의 정의 관계를 뜻한다. 즉 실질이자율이 증가하면 노동공급량도 증가한다는 것인데 이는 앞에서 예상한 것과는 반대의 관계이다. 이를 설명하는 한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만일 실질이자율의 증대가 거시경제지표로서 자금경색 내지 경기불황을 나타낸다면 이는 실업의 증대에 따른 유휴노동력의 존재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겠으며 그렇다면 실질이자율의 증가가 노동공급량의 증대를 낳은 것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양의 시간변수(t)계수는 명목임금이 상승추세에 있음을 경험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3. 임금반응식 추정결과

〈표 III-4〉에 수록되어 있는 임금반응식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식 (3)의 우변수는 모두 그 추정계수가 예상된 것과 부호가 동일하며 통계적 유의성을 갖고 있다. 이들 추정치에 따르면 첫째, 前期임금($W_{t-1,s}$)의 80%가 당기임금으로 전이된다. 둘째, 前期의 노동의 초과수요($XD_{t-1,s}$) 1단위는 당기임금을 0.0000198177단위 증가시키는 반면 전기의 노동의 초과공급($XS_{t-1,s}$) 1단위는 당기임금을 0.0000128269단위 감소시킨다. 즉 노동의 초과수요의 임금증대효과가 노동의 초과공급의 임금감소 효과보다 훨씬 크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임금의 상대적 하방경직성 내지 임금의 톱니효과가 존재함을 실증해준다. 셋째 전기의 소비자물가지수($CPI_{t,s}$)의 상승은 당기임금을 증대시키고 전기의 도매물가지수($WPI_{t,s}$)의 상승은 당기임금을 감소시키는 것이 실증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은 노동공급자의 실질임금상승요구를 유발하고 도매물가지수의 상승은 노동수요자의 지불능력약화를 초래함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표 III-4〉 임금반응식 추정결과

종속변수 = $W_{t,s}$: t기의 s산업에서의 생산직노동자의 명목임금

변수	추정계수	표준편차	t-값
$W_{t-1,s}$.800813	.162853	4.917
$XD_{t-1,s}$	$.198177 \times 10^{-4}$	$.551998 \times 10^{-5}$	3.590
$XS_{t-1,s}$	$-.128269 \times 10^{-4}$	$.326223 \times 10^{-5}$	-3.932
$CPI_{t,s}$	$.442684 \times 10^{-1}$	$.166448 \times 10^{-1}$	2.660
$WPI_{t,s}$	$-.409622 \times 10^{-1}$	$.108141 \times 10^{-1}$	-3.788
SIC_1	.38524	1.033919	.373
SIC_2	1.05787	.991149	1.067
SIC_3	1.57724	.891039	1.770
SIC_4	-1.60114	.806282	-1.986
SIC_5	-.33498	.997201	-0.336
SIC_6	.80524	1.053348	0.764
SIC_7	-.00315	.997013	-0.0032
SIC_8	.54268	1.020390	0.532
SIC_9	.15454	.974588	0.159
SIC_{10}	2.85442	.982233	2.906
SIC_{11}	-.75457	.788773	-0.957
SIC_{12}	1.36311	.886414	1.538
SIC_{13}	-.65144	.805168	-0.809
SIC_{14}	3.99417	.885391	4.511
SIC_{15}	-2.90327	.752907	-3.856
SIC_{16}	-1.12533	.876689	-1.284
SIC_{17}	.47214	1.009221	0.468
SIC_{18}	-.33867	.968432	-0.350
SIC_{19}	1.26507	1.013217	1.249
SIC_{20}	.27658	.888924	0.311
SIC_{21}	1.29452	.90181	1.438
SIC_{22}	.17110	.856656	0.200
SIC_{23}	-0.9788	.888941	-0.110
SIC_{24}	.67042	.939459	0.714
SIC_{25}	.72273	.908336	0.796
SIC_{26}	.90255	.874313	1.032
SIC_{27}	-1.07918	.839941	-1.285

 $R^2 = .638978$: Adjusted $-R^2 = .600650$

표본크기 = 324

IV. 임금의 균형회귀도 측정

본장에서는 노동시간의 경직성을 분석하기 위해 임금반응식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임금의 균형회귀도를 측정한다.

먼저 노동수요식(1)에서 계수 α_i 의 추정치를 a_i 로 표기하면 노동수요량 D_{ts} 의 추정치는 다음 D_{ts} 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D_{ts} = (a_0 + a_{5s}) + a_1 W_{ts} + a_2 WPI_t + a_3 K_{ts} + a_4 Q_{ts} + a_5 RGNP_t \\ = a_1 W_{ts} + A_{ts}$$

위에서 A_{ts} 는

$$A_{ts} = (a_0 + a_{5s}) + a_2 WPI_t + a_3 K_{ts} + a_4 Q_{ts} + a_5 RGNP_t$$

그리고 노동공급식 (2)에서 계수 β_i^* 의 추정치를 b_i^* 로 표기하면 노동공급량 S_{ts} 의 추정치는 다음의 S_{ts} 으로 나타낼 수 있다.

$$(2) S_{ts} = (b_0^* + b_{5s}^*) + b_1^* W_{ts} + b_2^* CPI_t + b_3^* INT_t + b_4^* t = b_1^* W_{ts} + B_{ts}^*$$

여기서 B_{ts}^* 는

$$B_{ts}^* = (b_0^* + b_{5s}^*) + b_2^* CPI_t + b_3^* INT_t + b_4^* t$$

이제 임금반응식의 추정계수를 c_i 로 표시하면 t 기의 s 산업에서의 생산직노동자의 명목임금 W_{ts} 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W_{t,s}$ 로 표시된다.

$$(3) W_{t,s} = c_s + c_1 W_{t-1,s} + c_2 XD_{t-1,s} + c_3 XS_{t-1,s}$$

$$\text{여기서 } c_s = \sum_{s=1}^{27} \gamma_s SIC_s + \gamma_4 CPI_s + \gamma_5 WPI_{t,s}$$

따라서 노동의 초과수요가 존재할 경우 t 기의 실질임금 추정치는

$$(3-1) W_{t,s} = c_s + c_1 W_{t-1,s} + c_2 XD_{t-1,s} \\ = c_s + c_1 W_{t-1,s} + c_2 (D_{t-1,s} - S_{t-1,s}) \\ = [c_s + c_2 (A_{ts} - B_{ts}^*)] - [c_1 + c_2 (a_1 - b_1^*)] W_{t-1,s}$$

그리고 노동의 초과공급이 존재할 경우 t 기의 명목임금 추정치는

$$\begin{aligned}
 (3-2) \quad W_{t,s} &= c_s + c_1 W_{t-1,s} + c_3 X S_{t-1,s} \\
 &= c_s + c_1 W_{t-1,s} + c_3 (S_{t-1,s} - D_{t-1,s}) \\
 &= c_s + c_1 W_{t-1,s} + c_3 (D_{t-1,s} - S_{t-1,s}) \\
 &= [c_s - c_3 (A_{ts} - B_{ts}^*)] - [c_1 - c_3 (a_1 - b_1^*)] W_{t-1,s}
 \end{aligned}$$

위식은 $W_{t,s}$ 의 일계 정차방정식(the first order difference equation)이다. 이것의 解는 $t+T$ 기를 기준으로 할때

$$(4) \quad W_{t+T,s} = (W_{t,s} - W_{t,s}^{E'}) \rho^T + W_{t,s}^{E'}$$

이며 여기서 $W_{t,s}^{E'}$ 는 $\lim_{T \rightarrow \infty} W_{t+T,s}$ 와 동일하며 장기동태균형임금을 나타낸다. 즉 노동의 초과수요가 존재할 경우 $W_{t,s} - W_{t,s}^{E'} < 0$ 이며

$$(5-1) \quad W_{t,s}^{E'} = \{c_s + c_2 (A_{ts} - B_{ts}^*)\} / \{1 - c_1 - c_2 (a_1 - b_1^*)\}$$

노동의 초과공급이 존재할 경우 $W_{t,s} - W_{t,s}^{E'} > 0$ 이며

$$(5-2) \quad W_{t,s}^{E'} = \{c_s + c_3 (A_{ts} - B_{ts}^*)\} / \{1 - c_1 - c_3 (a_1 - b_1^*)\}$$

($W_{t,s}^{E'}$ 는 수요식 (2)와 공급식 (3)을 일치시키는 실질임금 즉 정태균형임금과는 다르다. 정태균형임금은 $(A_{ts} - B_{ts}^*) / (a_1 - b_1^*)$ 가 된다.)

그리고 ρ 는 노동의 초과수요가 존재할 경우

$$(6-1) \quad \rho = c_1 + c_2 (a_1 - b_1^*) = c_1 - c_2 (b_1^* - a_1) \text{이며}$$

노동의 초과수요가 존재할 경우

$$(6-2) \quad \rho = c_1 - c_3 (a_1 - b_1^*) = c_1 + c_3 (b_1^* - a_1) \text{이다.}$$

그런데 식(5-1) 및 (5-2)에 따르면 장기동태균형임금 $W_{t,s}^{E'}$ 는 식(3-1)의 산업더미계수추정치 c_s 가 클수록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추정치 c_s 가 클수록 노동의 초과수요시 균형달성을 위한 임금상승폭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표 IV-1〉는 〈표 III-3〉의 산업더미계수중에서 통계적유의도를 갖는 계수와 그 산업의 수출비율 및 집중도를 연관시킨 것이다. 이 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수출비율이 높은 산업일수록 c_s 가 적다. 즉 수출비율이 10%를 상회하는 섬유사업과 기타석유석탄제품의 경우 c_s 가 -1.60114와 -2.90327로 음인 반면 수출비율이 10%이하인 종이 및 종이제품산업은 2.85442로 높다. 그리고 역시 c_s 가 양이며 높은 값을 갖는 담배와 석유정제의 경우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으나 담배와 석유정제가 주로 내수중심인 점을 고려하면 이 두 산업의 수출비율도 낮으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수출비율과 c_s 계수간 부의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수출비율이 높은 산업일수록 장기동태균형임금이 높으며 이는 노동의 초과수요가 존재할 때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임금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큼을 뜻한다.

둘째, 산업의 독점도를 나타내는 집중도와 c_s 계수간의 관계를 보면 독점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c_s 계수가 높다. c_s 계수가 양인 담배, 종이 및 종이제품, 그리고 석유정제는 전매산업이거나 혹은 집중도가 43.5%이상인 반면 c_s 계수가 음인 섬유나 기타석유석탄제품은 집중도가 41.3%이하로 낮다. 이는 장기동태균형임금과 c_s 계수간의 양의 관계를 고려할 때 독점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노동의 초과수요시 균형으로 회귀하기 위한 임금상승폭이 커야함을 알려준다.

〈표 IV-1〉 3분류 산업별 c_s 계수, 수출비율* 및 집중도^b

SIC	산업	c_s 계수	수출비율	집중도
314	담배	1.57724	Na	Na
321	섬유	-1.60114	0.47 ^c	0.413
341	종이 및 종이제품	2.85442	0.072 ^d	0.435
353	석유정제	3.99417	Na	0.890
354	기타석유석탄제품	-2.90327	0.104	0.339

주 : a 수출비율은 수출/총수요임 ;
b 집중도는 박영범(1986)의 3기업집중도를 기준으로 하되 4분류 내지 5분류산업으로 세분화된 경우 1987년 생산액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하여 3분류 자료를 만들었음.
c 섬유와 가죽산업을 통칭한 수치임.
d 종이 및 나무제품을 통칭한 수치임.
Na : 자료 不備

자료 : 수출비율은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3.3 ; 집중도는 Park Young-Bum, Economic Effects of Size of Employer in South Korea, Ph.D.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1986.

이제 t기에 노동수요의 불균형이 존재할 때 균형으로 회복되는 속도를 보기 위해 당기(명목)임금과 균형(명목)임금의 격차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로 빨리 줄어드는지를 추정하기로 한다.

정차방정식의 解 (4)를 달리 표시하면

$$(7-1) \quad W_{t+T,s} - WE^t_{\cdot,s} = (W_{t+T-1,s} - WE^t_{\cdot,s})\rho$$

혹은

$$(7-2) \quad W_{t+T,s} - WE^t_{\cdot,s} = (W_{t,s} - WE^t_{\cdot,s})\rho^T$$

이제 ρ 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위식의 좌변 $W_{t+T,s} - WE^t_{\cdot,s}$ 는 t+T기의 임금과 장기균형임금 $WE^t_{\cdot,s}$ 과의 격차를 나타내고 우변의 $(W_{t,s} - WE^t_{\cdot,s})$ 항은 t기의 실질임금과 장기균형임금간의 차이이므로 t+T기에는 두임금간의 격차가 줄어든다.

기준시점이 t이나 편의상 t=0라 두면 당해년도 균형이탈치는 $(W_{0,s} - WE^0_{\cdot,s})$ 이나

$$\text{일년후에는 } (W_{1,s} - WE^0_{\cdot,s}) = (W_{0,s} - WE^0_{\cdot,s}) \times \rho < W_{0,s} - WE^0_{\cdot,s}$$

$$\text{이년후에는 } (W_{2,s} - WE^0_{\cdot,s}) = (W_{0,s} - WE^0_{\cdot,s}) \times \rho^2 < W_{1,s} - WE^0_{\cdot,s}$$

$$\text{삼년후에는 } (W_{3,s} - WE^0_{\cdot,s}) = (W_{0,s} - WE^0_{\cdot,s}) \times \rho^3 < W_{2,s} - WE^0_{\cdot,s}$$

로써 매년 감소한다. 즉 ρ 는 균형회복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이제 3절의 추정계수를 써서 ρ 의 값을 계산하면 노동의 초과수요가 존재할 경우

$$\begin{aligned} \rho &= c_1 - c_2(b_1^* - a_1) \\ &= .800813 - 0.198177E-04 \times [1/0.0000233654 - (-12761.1)] \\ &= -0.300247 \end{aligned}$$

가 된다. 위에서 b_1^* 는 $\beta_1 = 1/\beta_1^*$ 에 의거하여 $1/b_1$ 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노동의 초과공급이 존재할 경우에는

$$\begin{aligned} \rho &= c_1 + c_3(b_1^* - a_1) \\ &= .800813 - 0.128269E-04 \times [1/0.0000233654 - (-12761.1)] \\ &= 0.0881578 \end{aligned}$$

가 된다.

이제 <표 IV-2>를 보면 임금의 균형회귀도 즉 $(W_{t+T,s}-WE^t_{\cdot,s})/(W_{t,s}-WE^t_{\cdot,s})=\rho^T$ 는 노동의 초과수요시와 초과공급시에 서로 상이한 패턴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먼저 노동의 초과수요가 존재할 경우 임금은 1년 이내에 균형수준에 도달한 후에 이를 넘는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는 과잉반응을 보여준다. 즉 0기의 초과수요가 존재할 경우

$$W_{t,s}-WE^t_{\cdot,s}<0$$

인데 1기에는 당기임금과 균형임금의 차이가

$$(W_{t+1,s}-WE^1_{\cdot,s})=-0.300247\times(W_{t,s}-WE^t_{\cdot,s})>0$$

가 되어 오히려 임금이 균형수준을 오버슈트하는 과잉반응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노동의 초과공급이 존재할 경우 임금의 균형수준과의 격차는 1기에 가서 0기의 8.8%로 줄고 2기에는 1%이하로 줄어든다. 즉 노동의 초과공급시에는 초과수요시에 비하여 임금변화는 완만하다. 즉 임금의 하강속도는 초과공급시의 상승속도에 비해 느리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임금균형회복속도는 2원성을 띄고 있다고 하겠다. 즉 인력난의 경우에는 임금상승속도가 아주 빠른 반면 인력과잉의 경우에는 임금하락속도가 느려 기업의 노무비안정화가 용이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IV-2> 임금의 균형회귀도 : $(W_{t+T,s}-WE^t_{\cdot,s})/(W_{t,s}-WE^t_{\cdot,s})=\rho^T$

T	ρ^T	
	노동의 초과수요時 ($W_{t,s}-WE^t_{\cdot,s}<0$)	노동의 초과공급時 ($W_{t,s}-WE^t_{\cdot,s}>0$)
1	-0.300247	0.0881578
2	0.0901482	0.00777717
3	-0.0270667	0.0006851

V. 요약 및 대책

본연구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직노동시장의 임금경직성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른 주된 발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의 초과수요時 즉 인력난이 존재할 때 이를 해소하고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임금상승폭은 산업이 수출지향적일수록 더 낮고 독점적일수록 더 높으며 노동의 초과공급시 즉 구직난의 경우 이를 해소할 임금하락폭은 산업이 수출지향적일수록 더 크고 독점적일수록 더 적다. 즉 임금의 하방경직성은 내수지향적이거나 독점적산업에서 더 크다.

둘째,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임금의 변화속도가 노동의 초과수요가 존재할 때가 초과공급이 존재할 때 보다 훨씬 더 빠르다. 초과수요의 경우 임금은 안정적으로 균형을 회복하지 않고 1년째에 가서 균형임금을 초과하는 오버슈트 현상을 보이고 2년째에는 도로 균형이하로 내려오는 오실레이션 패턴을 보인다. 물론 시간이 감에 따라 진폭은 적어지면서 균형의 상하로 움직이며 균형점으로 수렴하기는 한다. 초과수요시의 임금의 오버슈트현상은 노동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시켜주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데 기인한다고 보아진다. 초과공급의 경우에는 임금이 안정적으로 균형임금을 향해 하락하지만 그 하락속도는 초과수요시의 임금상승 속도보다 훨씬 느리다. 따라서 실업속의 고임금현상이 상당기간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근년에 도입된 최저임금제, 노동조합의 무리한 고임금 요구, 경직적 노사관계 등에 따른 임금의 가격기능저해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위와 같은 경험적 발견을 종합할 때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제시될 수 있다. 먼저 노동의 초과수요시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임금상승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물시장의 경쟁성제고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방의 가속화 및 국제화에 의한 수출비중의 확대와 아울러 산업에 대한 여러 진입장벽 즉 정책금융, 여신규제, 업종전문화, 산업합리화 등등을 폐기할 것이 요구된다. 또 공기업의 민영화도 아울러 요구된다. 그리고 노동의 초과수요시의 임금의 오버슈트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취업알선업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정부기간보다는 민간인력회사의 설립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할 것이다.

부 록

3분류산업의 내역과 산업더미 SIC의 정의

제조업표준산업분류 (SIC)	해 당 산 업	SIC더미
311;312	식료품	SIC ₁
313	음료품	SIC ₂
314	담배	SIC ₃
321	섬유	SIC ₄
322	의복, 신발제외	SIC ₅
323	가죽, 대용가죽, 모피가죽	SIC ₆
324	신발 ; 성형고무 및 플라스틱신발 제외	SIC ₇
331	나무, 콜크제품 ; 가구제외	SIC ₈
332	가구, 장치물 ; 금속제외	SIC ₉
341	종이, 종이제품	SIC ₁₀
342	인쇄, 출판 및 관련산업	SIC ₁₁
351	산업용화학물	SIC ₁₂
352	기타화학제품	SIC ₁₃
353	석유정제	SIC ₁₄
354	기타석유석탄제품	SIC ₁₅
355	고무제품	SIC ₁₆
356	플라스틱	SIC ₁₇
361	도기, 자기, 토기	SIC ₁₈
362	유리, 유리제품	SIC ₁₉
369	기타비금속광물	SIC ₂₀
371	철강	SIC ₂₁
372	비철금속	SIC ₂₂
381	조립금속 ; 기계 및 장비 제외	SIC ₂₃
382	기계 ; 전기제외	SIC ₂₄
383	전기 및 전자기기	SIC ₂₅
384	운수장비	SIC ₂₆
385	의료, 광학, 전문, 측정 및 제어장비	SIC ₂₇

참고문헌

1. 배무기, 「노동력 수급구조의 변화분석」, 『한국의 노사관계와 고용』, 경문사(1991).
2. Artus, J. 'The disequilibrium real wage hypothesis : an empirical evaluation', IMF Staff Papers 31 2(1984)

3. Ashenfelter, O. and Card, D. 'Time series representations of labour market models', *Review of Economics Studies* 49, special issue on unemployment, 761–781.
4. Beckerman, W. and Jenkinson, T. 'What stopped the inflation? Unemployment or commodity price?' *Economic Journal* 96(381)(1986)
5. Beckerman, W. and Jenkinson, T. 'How rigid are wages anyway?' in Beckerman, W., *Wage rigidity and unemployment* (Baltimore : The Johns H. University Press, 1986), 21–42
6. Geary, P.T. and Kennan, J. 'The employment—real wage relationship : an international stud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0(4) (1982), 854–871.
7. Gordon, R.J., 'Why US wage and employment behaviour differ from that in Britain and Japan,' *Economic Journal* 92(1982), 12–44
8. Grubb, D. Jackman, R. and Layard, R. 'Wage rigidity and unemployment in OECD countries', *European Economic Review* 21 (1983) (International Seminar on Macroeconomics), 1130
9. Hahn, F.H., 'Wages and employment', *Oxford Economic Papers* (Nov. 1984, Supplement 'Economic theory and Hicksian themes'), 47–58.
10. Jenkinson, T.J.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NAIRUs : A Critique' (mimeo. Oxford University, 1986)
11. Keynes, J.M,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London : Macmillan, 1936)
12. Lipsey, R.G.(1960), 'The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the rate of change of money wage rates in the UK, 1862–1957 : a further analysis', *Economica* 27(1960) 1–31
13. Metcalf, D., 'On the measurement of employment and unemployment',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109(1984) 59–97
14. Park Young-Bum, *Economic Effects of Size of Employer in South Korea*, Ph.D.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1986
15. Sachs, J.D. 'Real wages and unemployment in the OECD countrie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1983), 255–284